

## 성적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연 규 월・이 근 후

= Abstract =

### A Study on the Sexual Conflict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Kyu-Wol Yun, M.D., Kun-Hoo Rh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Autor has been interested i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and researched the latent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by way of social field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method from June 20th, 1984 to Aug. 10th, 1984(The subjects : 653 couples of middle class people in Seoul).

This study is researched and analyzed under the following hypothesis :

If the latent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comes into existence, the unsatisfaction of wives will be shown in higher degree than that of husband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

1) As to the satisfaction of marital relation, the attitude about the importance of sexual life, and the anticipation about the sex before marriage which are the factors operating on the sexual life of marital relation, the unsatisfaction of wives is shown in higher degree than that of husbands.

2) The reason for the unsatisfaction of wives is interpreted under the followings.

Psychoanalytically, woman has complicated process of dissolution of Oedipus complex and the unconscious drive wish to have an achievement about the passive attitude.

Psychosocially, woman has much more role conflict and disadvantages of sexuality under the double concepts of social value system.

### 緒 論

임상경험으로 볼 때 정신분석의를 찾아오는 결혼한 내담자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신 치료를 통한 주된 역동성의 추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 형성의 주요인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부조화, 그중 특히 성생활에서 오는 부조화가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부부간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은 부부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고 결혼이란 성적 만족에 대해 합법적인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적 조화란 결혼 이해의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따라서 만족할만한 성적생활은 결혼 성공에 기여하는 것<sup>3)</sup>이고 어려움이 있을때는 성이 결혼에서 그들의 갖는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이런 성적갈등의 근본은 정신분석적으로는 그 근원이 유아기적 정신현상에 있고 억압된 성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을때 타협형성으로 후에 신경증적 증상을 초래하여 결혼관계에 까지 연장된다<sup>6)7)8)</sup>.

표면적으로는 정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성적갈등에 관해 지금까지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로 개인의 무의식에 대한 통찰을 통해 정신병리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저자는 일반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질문지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성적갈등 연구결과에 정신 사회학적 및 분석학적 이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잠재된 성적갈등이 있을 경우 남편보다 부인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각 부부간의 만족도나 기대, 충족도 차이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클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결혼 만족도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1984년 6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일차로 증상류층이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집락표집(cluster sampling)한 결과 서울 시내의 다음 지역이 표집되었다.

(서대문구: 연희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서초동, 압구정동, 은평구: 역천동, 신사동, 성북구: 성북동, 강동구: 둔촌동, 도봉구: 수유동, 강서구: 화곡동). 이상 10개동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동에서 200쌍의 부부를 무작위(random sampling)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 2) 조사방법 및 분석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 총2000쌍의 질문지를 배부 또는 우송한 결과 응답해온 705쌍의 질문지중(35.3% 회수율) 응답이 불성실한 52쌍을 제외한 653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사회과학 통계 자료집)에 의거 통계처리

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 ① 연령은 만 31세에서 45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 ② 교육수준은 부인은 64.4%가 고졸이상, 남편은 77.5%가 대졸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 ③ 사회 경제적 상태는 생활비 규모로 볼 때 중상류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 ④ 직업분포는 경제기획원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은 사무직, 부인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 2) 부부의 성생활에 작용하는 요인

부부간의 성생활을 2차에 걸쳐 요인 분석하여 Eigen value가 1보다 크고 설명력이 50% 이상인 변수로서 결혼생활 만족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충족도 세가지를 부부간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표 1).

### 3)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잠재적 갈등 분석

#### ① 결혼생활 만족도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부부 각각의 태도를 통해 보면 부인이 남편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있다. 즉 결혼초에는 만족했으나 현재는 불만족한다가 부인 15.9%, 남편 8.1%, 결혼초, 현재 모두 불만인 경우가 부인 7.7%, 남편 2.1%로 부인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한편 결혼초에는 불만이었으나 지금은 만족한다가 부인 24.7%, 남편 13.6%로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초의 만족과 현재의 만족이 일치하는율이 남편군에 비해 떨어지는 반면 살아가면서 불만의 해소 경험율이 남편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혼생활 만족도는 남편군이 부인군에 비해 약간 높아 74.7%, 부인군은 71.6%를 보였다.

표 3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부간의 태도를 짚어줘 나타낸 것인데 표 2와 마찬가지로 부인이 남편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다소 많음을 볼 수 있다.

부부간의 태도를 다음의 3집단, 부부간의 태도가

일치하는 집단(I), 부인이 남편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II), 남편이 부인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III)으로 나누어 볼때, 집단 II와 III은 I에 비해 잠재적 갈등을 포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부간의 태도는 집단 II가

32.7%, 집단 III이 10.8%로 부인이 남편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부부 집단이 그 반대의 부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의 일치된 태도를 나타내는 집단 I 가운데 결혼초에는 만족했으나 지금은 불만인 부부가 3.0%, 결혼초에도

표 1. 부부의 성생활 요인분석

요 인	변 수	부 인		남 편	
		Eigen Value	Pac. of Var	Eigen Value	Pac. of Var
결혼생활	결혼생활만족도	1.80276	62.4*	1.66260	65.7*
	부부관계의 중요도	0.69054	23.6	0.50603	20.0
	부부간의 별거에 대한 태도	0.40618	14.1	0.36063	13.3
성생활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1.14170	77.1*	1.16703	79.4*
	신혼초 성관계를 갖게 된 상황	0.33979	22.9	0.30294	20.6
성 교	성교체위의 다양성	2.01405	39.5	4.44735	37.5
	성교체위에 대한 태도	1.37857	27.0	2.20239	20.5
	성관계의 주도권	0.81485	15.0	1.68477	17.3
	성생활 만족도	0.42081	9.6	1.46923	17.2
	절정감 경험	0.27645	8.9	0.96733	7.4
성생활의 적응	성적응시 어려움	1.11424	47.4	—	—
	성적응 기간	0.68120	29.0	—	—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충족도	성적 부적응의 이유	0.55376	23.6	—	—
	애정표시에 대한 기대	2.55105	57.5*	3.18767	68.8*
	애무에 대한 태도	1.88180	42.5	1.44767	31.2

\*2차요인 분석결과 Eigen Value 1이 넘고 설명력 50%이상인 변수

표 2.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부 각각의 태도

태 도	구 분	부 인		남 편	
		f	%	f	%
결혼초에도 만족하고 지금도 만족한다		300	45.9	399	61.1
결혼초에는 불만이었으나 지금은 만족한다		167	24.7	89	13.6
결혼초에도 만족했으나 지금은 불만족이다		104	15.9	53	8.1
결혼초에도 불만이고 지금도 불만이다		50	7.7	14	2.1
비해당 무응답		38	5.8	98	15.0
	계(N)	659	100.0	653	100.0

표 3.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각 부부 상호간의 태도

부인의 태도	남편의 태도		결혼초에도 불만		결혼초에는 만족		결혼초에는 불만		결혼초에도 만족	
	무응답	무응답	지금도 불만	지금도 불만	지금도 불만	지금도 불만	지금은 만족	지금은 만족	지금은 만족	지금은 만족
결혼초에도 만족	2(0.4)	3(0.6)	16(3.0)	26(4.8)	234(43.2)					
결혼초에는 불만	1(0.2)	1(0.2)	7(1.3)	38(7.0)	94(17.3)					
결혼초에는 만족	1(0.2)	5(0.9)	16(3.0)	9(1.7)	34( 6.3)					
결혼초에도 불만	1(0.2)	4(0.7)	9(1.7)	13(2.4)	18( 3.3)					
무 응 답	1(0.2)	0(0.0)	3(0.6)	1(0.2)	5( 0.9)					

N=542(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입) ( )는 백분율

불만이고 지금도 불만인 부부가 0.7%인데, 이들 부부는 현재의 결혼생활에 부부가 동시에 불만을 느낀다는 점에서 역시 갈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부인, 남편 각각의 경우와 부부를 짝지은 경우를 비교할 때 현재 결혼생활에서는 부인의 불만족도가 남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표 4에서 나타난 바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부 각각의 태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부부간 성생활은 잘되면 좋고 안되어도 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부인 51.1%, 남편 41.3%). 이에 반해 '부부간의 성생활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부인 6.6%, 남편 3.4%), '없어도 무방하다'(부인 3.2%, 남편 0.9%)와 같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부인이 남편보다 다소 높다.

표 5는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부부 짝짓기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일치된 태도를 보이는 집단(I), 부인이 남편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II), 남편이 부인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III)으로 나누어 볼 때, 집단 II가 23.9%, 집단 III이 14.5%로 부인이 남편보다 성생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부 집단이 다소 많았다.

부부각자와 짝짓기를 한 부부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소극적이며, 다소 부정적임을 볼 수 있다.

③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를 부부 각각의 태도를 통해 보면 부인이나 남편 모두 비교적 컸다고 응답한 율이 제일 많아서 각각 45.6%, 42.9%인데 부인쪽이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가 남편보다 약간 높았다.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거나, 비교적 컸다고 답한 것도 합해보면 부인은 67.2%, 남편은 64.6%로 전체적인 기대 수준이 부인쪽에서 더 높았음을 볼 수 있다.

표 6.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부부 각각의 기대

태도	부인		남편	
	f	%	f	%
매우 컸다	141	21.6	142	21.7
비교적 컸다	298	45.6	280	42.9
비교적 약했다	108	16.5	111	17.0
매우 약했다	61	9.3	20	3.1
비해당·무응답	45	6.9	100	15.3
계(N)	653	100.0	653	100.0

표 4.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부 각각의 태도

태도	부인		남편	
	f	%	f	%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225	34.5	259	39.7
잘되면 좋고 안되어도 할 수 없다	334	51.1	270	41.3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43	6.6	22	3.4
없어도 무방하다	21	3.2	6	0.9
비해당·무응답	30	4.6	96	14.7
계(N)	653	100.0	653	100.0

표 5.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부부 상호간의 태도

부인의 태도	남편의 태도				
	무응답	없어도 무방하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잘 이루어지면 좋고 안되어도 알 수 없다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3(0.6)	1(0.2)	4(0.7)	59(10.8)	132(24.3)
잘 이루어지면 좋고 안되어도 할 수 없다	2(0.4)	3(0.6)	10(1.8)	190(34.9)	101(18.6)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1(0.2)	2(0.4)	3(0.6)	11(2.0)	11(2.0)
없어도 무방하다	0(0.0)	0(0.0)	4(0.7)	2(0.4)	1(0.2)
무응답	1(0.2)	0(0.0)	0(0.0)	1(0.2)	2(0.4)

N=544(비해당 Missing은 제외한 수임) ( )은 백분율.

표 7.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각 부부 상호간의 기대

부인의 태도	남편의 태도	무응답	매우 약했다	비교적 약했다	비교적 컸다	매우 컸다
매우 컸다		2(0.4)	5(0.9)	8( 1.5)	3( 0.6)	4(0.7)
비교적 컸다		4(0.7)	14(2.6)	56(10.3)	53( 9.8)	2(0.4)
비교적 약했다		7(1.3)	53(9.8)	144(26.5)	67(12.3)	2(0.4)
매우 약했다		3(0.6)	29(5.3)	48( 8.7)	11( 2.0)	1(0.2)
무응답		3(0.6)	7(1.3)	13( 2.4)	4( 0.7)	1(0.2)

N=543 (비해당 Missing을 제외한 수임) ( )은 백분율

표 7은 결혼전 성에 대한 부부의 기대를 짚어워 본 것으로 부부 모두 기대가 비교적 약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다.

결혼전 성에대한 기대는 앞의 두요인 결혼생활 만족도와 성생활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부부간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인이 남편보다 기대가 컸던 부부 집단이 24.0%, 남편이 부인보다 기대가 컸던 집단이 25.7%로 잠재된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부집단이 약 과반수를 차지한다.

## 고 찰

본 연구는 부부의 성생활 요인 분석에서 결혼생활 만족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충족도등 세가지 요인을 토대로 부부간 성적갈등의 잠재성이 있는 경우 남편보다 부인의 불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개별적으로나 부부 단위 모두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불만의 정도가 높고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부 태도 역시 성에 대한 소극성이 부인측에서 남편에 비해 훨씬 높고 성이 부부생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 역시 개별적으로나 부부 단위 공히 부인측에서 기대도 크고 기대하기 않는 것도 남편에 비해 크다.

부인이 남편에 비해 잠재적 성적 갈등이 높은 것은 요인에 따라 그 정도가 현저한 것도 있고 근소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가설과 일치된다. 이런 일

치된 경향의 수치는 의식수준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정신분석적 접근으로 개인별로 추구한다면 아마 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식수준의 응답이 무의식적 잠재된 성관에 의해 영향을 받긴 하지만 표현과정에서 방어되기 때문에 무의식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부부각각, 짝짓기 한 경우 여성의 불만족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생활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남성이 사회지향적인 반면 여성은 가정지향적 가치관 때문에 남성의 사회적 성취에 반비례하여 여성자신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소외와 불만족감을 증진시켰을 것으로 본다는 보고<sup>9)</sup>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대졸 이상의 정상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을때 부인이 남편보다 더 잘 적응한다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sup>10)</sup>.

현재 변동기에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져 왔던 사회적 배경아래선 부계에 의해 모계가 종속되기 마련이다. 즉 의결사항이나 의사소통, 부부사이의 힘의 구조에 있어 남편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유형 아래선 불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더우기 모든 조건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성 차이의 불균형이<sup>4)</sup> 시정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선 여성의 자아 정체감이 눈을 뜨고 확립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만의 정도를 보다 높였다고도 보여진다<sup>11)</sup>.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부부각각에서는 태도 차이가 없었으나 부부 짝짓기를 했을때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 더 많았다. 이는 간접적으로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갈등의 소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성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다른

연구<sup>913)</sup>들과 비교할 때 일치됨을 보였다.

Masters와 Johnson<sup>14)</sup>은 성적문제가 항상 무의식의 신경증적 갈등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주 일어나는 성적실패에 의한 단순한 피상적인 불안 때문에도 온다고 지적하고 부인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부인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문화는 성의 억압을 강조하여 성을 입밖에 낸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였고<sup>15)</sup> 특히 여성에게는 성은 금기이며 단지 생식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문화양상 때문에 이에 익숙해져온 여성의 성적응의 어려움으로 생각되며, 연령별로 31세에서 45세란 나이는 경제문제, 자녀양육문제, 고부간 갈등등 현실적인 가중된 부담 때문에 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각 부부상호간의 기대를 보면 개별적으로, 부부단위 공히 부인쪽에서 기대도가 컸고 부부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며 잠재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부집단이 과반수로 나온 것은 부부간 성생활 갈등의 주요인이 현재 그 사람의 위치나 배경보다는 결혼이전에 형성된 태도, 경험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어린시절의 해결되지 못한 무의식적 내적 갈등이 결혼적응과 관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sup>48)16)</sup>에 의하면 Freud의 정신성적 발달 단계중 에디프스기의 갈등 미해결, 형제서열, 사춘기때 영향 받게 되는 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 특히 부정적 태도, 학습, 사회화과정, 조건화등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에서 내세운 부인의 성적갈등과 결혼 생활 불만족도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정신분석적, 사회학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에서 지적하는 전성기기의 여성 정체감은 수동적이고 열등하며 피상적이고 자기애적인 것이다. 이런 계통발생적 정체감은 성장과정에서 획득되는 후기 교육의 영향으로 사춘기가 신체 정신적으로 정점을 이루고 여성의 성적 장체감의 의식화는 무의식적 정체감과 사이의 갈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이유는 에디프스기의 복잡한 극복과정과도 관계가 깊다.<sup>17)18)</sup>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복잡한 과정을 경과하면서 공상적 근친

상간을 극복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sup>19)</sup>.

남성이 어머니로부터 성적대상인 여성으로 바뀌는 과정은 단순한데 비해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이성인 아버지애로의 전환과정이 더 복잡하다. 어머니와의 애착으로 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것과 남성적 추구를 통한 경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여성임을 받아들이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다른 의견은 여성의 난자가 자체적으로 이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토대로 심리적으로 수동적 자세를 특징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성도 엄격하게는 수동-적극성이란 용어로 표현되었듯이 간접적 성취의 무의식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것은 남성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해 나가는데 반해 여성은 남성을 통한 간접적인 정체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족의 증가가 더 많다고 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욕구를 가정 밖에서 해소할 가치가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고 남성의 성적 정조에 비해 여성의 성적 정조가 강조되는 사회가치의 이중구조에선 자연히 불만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행위를 부부에 국한시키고 있지만 성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남편의 혼외정사가 허용되고 심지어는 정당화하기까지 하여<sup>16)20)21)</sup> 남성 위주의 동양권에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조해 온 전통적 규범으로 여성의 불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가<sup>22)23)</sup> 여성의 불만족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고 보겠다.

이상은 부인이 남편보다 결혼생활에서 성적갈등과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일반화시켜 정신분석학적, 사회학적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그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있어야 할 것과 환자군간의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취약점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 론

1984년 6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서울시내 중산층 부부 653쌍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법을 사용한 사회학적 조사방법을 통해 부부간에 잠재된 성적갈

등이 있을 경우 남편보다 부인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부부간 성적갈등의 잠재성 규명과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정신분석학적, 사회학적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1) 부부간 성생활에 작용하는 요인은 결혼생활 만족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의 세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고 이들 요인을 부부각각의 태도, 짝짓기한 부부간의 태도, 만족도, 기대의 차이로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간에 잠재된 성적갈등은 남편보다 부인쪽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정신분석학적으로 부인의 불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여성이 갖는 복잡한 에디프스 복합의 극복과정과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성취하려는 무의식적 욕구때문이라 보며 정신사회학적으로는 사회가치의 이중구조하에서 받는 여성의 성적인 불이익과 역할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 References

- 1) Arieti S, Brodie HK :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 III, 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81 ; pp408-422*
- 2) Dreikurs RC : *The Challenge of Marriage. New York, Hawthorn Books Inc, 1946 ; pp149-157*
- 3) Rice FP :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9 ; pp44-64*
- 4) Klemer EJ, Howard DM : *Postmarital Consequences of Premarital Sex Adjustment. Amer Social Review 1958 ; 23 : 556-562*
- 5) Kaplan HI, Sadock BJ :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III. Williams & Wilkins Co, 1981 ; pp161-181*
- 6) Freud S : *Five Lecture on Psycho-analysis, Leonardo and Other Works(1910). Standard Ed., X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193-207*
- 7) Freud S : *The Future of an Illusion,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and Other Works(1927-1931). Standard Ed., XX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225-242*
- 8) James M : *Marriage is for loving. Addison-Wesley Pub Co., 1979 ; pp135-155*
- 9) Shaver P, Freedman J : *Your Pursuit of Happiness. Psychology Today, 1976 ; Aug : 26-32*
- 10) 권정화 : 한국도시 중산층 부부의 에디프스 콤플렉스.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1985
- 11) 최신덕 : 도시 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논총, 한국문화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1973 ; 22 : 30-31
- 12) 유은희 : 한국도시 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5
- 13) Fischer EM, Turner JL : *Factors i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Proceeding in the 7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 Psychol Ass, Vol 4, 1980*
- 14) Masters WH, Jonson VE : *Human sexual inadequacy. Boston, Little Brown & Co., 1981 ; pp105-117*
- 15) 한동세 : 한국인의 성도착증. 신경정신의학, 1970 ; 9 : 27-34
- 16) Shorter E :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1977 ; pp415-419*
- 17) Freud S : *Three Essays on Sexuality(1905). Standard Ed., VI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 135-172*
- 18) Freud S : *Introductory lecture on psychoanalysis, Part III(1916). Standard Ed., XV,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126-135*
- 19) Freud S : *The dissolution of the oedipus complex (1924). Standard Ed., XIX,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73-79*
- 20) Singh K, Walton BL, Williams JS : *Extra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condition and contingencies. Jour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16 ; Nov : 701-712*
- 21) Atwater E : *Psychology of Adjustment. 2nd ed.,*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 pp 159-188*
- 22) Frieze I : *Wonen and Sex roles, New York, Norton, 1978*
- 23) Pleck JH : *The Male Sex Role : Definitons, Problems and Sources of Change, Jour of social Issues 1976 ; 32 : 155-164*